



한·일 양국간 원자력 발전 공동 추진

방 국 진

한국대표단장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상근부회장

존 경하는 오야마 의장님과 마쓰모토 일본 대표단 단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한·일 양국 관계 인사 여러분!

오늘 제26회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를 맞이하여 본인이 한국 참가단을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한·일 원자력산업 세미나는 한·일 양국의 원자력산업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로 내실 있는 양국간 대화 협력의 장으로 성장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양국간의 우정을 돈독히 다져 나가는 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특히 작년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본 세미나에 많은 일본 측 전문가들께서 참석하셔서 양국 공동 관심사와 현안 문제에 대한 훌륭한 논문 발표와 열띤 토론을 통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많은 원자력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갖고 51명이라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정보 교류와 상호 관심 사항을 논의하고 친선을 다지는 본 세미나에 앞으로도 양국간에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한·일 원자력 관계자 여러분!

주지의 사실이지만 인류의 복지를 위한 과학 문명의 발전에는 에너지의 힘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원자력은 부존 자원이 많지 않은 한국과 일본에서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으며 지금도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원자력 산업계는 원전의 상업 운전을 처음 시작한 이래 지난 26년 동안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왔으며, 현재 총19기의 상업 운전중인 원전 외에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간 표준형 원전의 안전성 향상,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과 핵비확산성 핵연료 주기의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원자력은 공해 없는 깨끗하고 경제적인 청정 에너지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의 안전에 대한 편견과 불안 등으로 인하여 여러 나라에서 원전 사업 추진 정책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한국에서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부지 확보와 원자력발전소의 추가 건설 및 운영이 지역 이기주의와 반핵 단체에 의해 17여년간 표류하고 있으며, 특히 고유가 시대에 있어 경제적인 에너지로서 원자력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장래 국가 에너지 확보 계획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 노력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원전 시설을 확보한 일본 원자력

산업계의 노력과 연구 활동은 한국 원자력 산업계에 많은 참고와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역시 그간의 원전 사업 추진 노력을 통하여 얻은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을 위한 여러 방향의 안전성 제고와 관련된 여러 활동 현황과 실적들을 일본 원자력 산업계와 공유하며 양국간 원자력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개최되는 한·일 세미나를 통하여 양국간 공

동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상호 협력 관계에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하시는 양국의 원자력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끝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정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임직원 및 준비위원회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